극단적인 케이스 (균형이 깨진 [편향 이진 트리])에서의 실행시간 비교 (0~4509)	입력을 test.txt 로 받은 상태에서의 실행시간 비교
인터넷에서 찾은 RB tree	인터넷에서 찾은 RB tree
: 2.378	: 1.596
: 2.444	: 1.522
: 2.490	: 1.592
: 2.479	: 1.593
: 2.413	: 1.599
=> 2.4408	=> 1.5804
인터넷에서 찾은 AVL tree	인터넷에서 찾은 AVL tree
: 2.332	: 1.618
: 2,309	: 1.717
: 2,319	: 1.562
: 2,329	: 1.615
: 2,315	: 1.585
=> 2.3208	=> 1.6194
인터넷에서 찾은 binary_search tree	인터넷에서 찾은 binary_search tree
: 2.619	: 1.581
: 2.552	: 1.544
: 2.542	: 1.538
: 2.560	: 1.481
: 2.524	: 1.575
=> 2.5594	=> 1.5438
직접 구현한 Rb_tree	직접 구현한 Rb_tree
: 2.348	: 1.535
: 2.191	: 1.570
: 2.375	: 1.543
: 2.310	: 1.545
: 2.304	: 1.517
=> 2.3056	=> 1.5420

## 분석

최대한 동일한 환경에서 실행시간이 비교될 수 있게 하였으며,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직접 짠 코드의 실행시간이 적게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
분석을 통해 놀랐던 사실은 케이스가 크게 극단적이지 않은 테스트 케이스가 들어올 경우, binary search tree와 RB tree의 실행시간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.

이는 직접 짠 코드가 최적화된 코드가 아니거나, 인터넷에서 찾은 binary search tree가 최적화 된 코드이거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,

RB tree는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 '재정렬'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이상 재정렬을 할 필요없는 binary search tree랑의 실행시간 차이가 없는 것일수도 있다.